호주 주류시장 동향

백진욱 | 연구본부 대리

최근 6년간 호주의 주류시장은 정체되어 있다. 2008년에서 2010년까지 3년 동안 주류 소비량이 소폭 증가하였다가 2011년 0.7%, 2012년 0.9%가 각각 소비량이 감소하였다. 그러나 2013년에는 0.2%로 소폭 주류 소비량이 증가되었다. 특히 증류주의 소비량이 2012년에 비하여 2013년에 4.1% 증가하였다. 이에 반하여 RTD 2.9%, 맥주 0.6%, 와인 0.5% 각각 감소하였다.

호주 주류 소비량(순 알코올 기준)

단위 : 천ℓ

주종 / 연도	맥주	와인	증류주	RTD	사과주 (CIDER)	총합계	전년대비 증 감 률
2008년	79,496	62,807	20,148	18,693	1,087	182,231	-
2009년	81,148	65,600	22,900	13,012	1,644	184,304	1.1%
2010년	79,736	68,451	23,014	12,811	2,208	186,220	1.0%
2011년	77,327	68,000	24,034	12,814	2,733	184,907	-0.7%
2012년	75,585	69,044	23,082	12,490	3,063	183,264	-0.9%
2013년	75,116	68,719	24,032	12,130	3,600	183,597	0.2%

자료 : 호주 통계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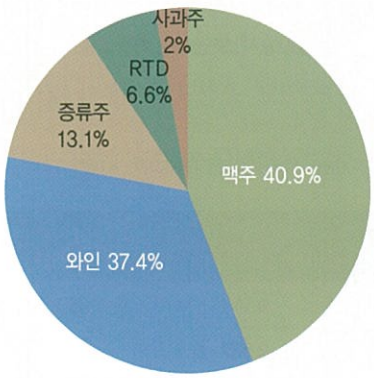
주 : RTD(Ready To Drink) : 고 알코올 주류에 여러 가지 음료를 섞어 만든 저알코올 주류

주 : 호주 통계청에서는 7월 1일부터 다음 해 6월 30일 까지를 일 년으로 간주하여 통계를 내고 있음. 예를 들어 2013년도는 2012년 7월 1일부터 2013년 6월 30일까지의 통계치임.

주 : 순 알코올은 100도 환산 기준

2013년 순알코올량 기준으로 보았을 때 전체 주류소비량에서 맥주는 40.9%, 와인은 37.4%, 증류주는 13.1%, RTD는 6.6%, 사과주는 2.0%를 차지하였다.

호주 주종별 시장 점유율 (단위: %)



○ 맥주

2013년 전체 맥주 소비량은 1,730,091천리터이다. 이는 2012년에 비하면 1.8% 감소하였다. 호주에서는 맥주를 알코올 도수에 따라 3가지 종류로 분류하는데 일반 도수(full strength) 맥주는 3.5% 이상, 중간도수(mid-strength) 맥주는 3.0% ~ 3.5%(3.5%포함), 낮은 도수(low strength) 맥주는 1.15%

맥주 소비량

단위 : 천ℓ

구분 / 연도	낮은도수 (Low strength)	중간도수 (Mid strength)	일반도수 (Full strength)	총소비량
2008년	176,984	271,807	1,387,008	1,835,798
2009년	156,906	281,793	1,434,112	1,872,810
2010년	144,599	289,815	1,421,708	1,856,122
2011년	128,787	291,579	1,388,451	1,808,817
2012년	113,298	296,856	1,352,258	1,762,411
2013년	102,655	307,815	1,319,621	1,730,091

자료 : 호주 통계청

~ 3.0%(3.0% 포함)으로 분류한다. 알코올 도수로 보았을 때는 일반 도수의 맥주가 2.4%, 낮은 도수가 9.4%, 중간도수가 3.7% 감소하였다.

2013년 맥주소비량을 순 알코올 기준으로 환산해보면 75.1 백만 리터였으며, 이는 2012년의 75.6 백만 리터에 비하면 0.6% 감소하였다. 일반 도수(full strength) 맥주는 2013년 기준 전체 맥주 소비량의 82.1%를 차지하였다. 중간 도수(mid strength) 맥주는 14.3%이다. 낮은 도수(low strength) 맥주는 3.6%이다. 2008년에는 일반 도수 맥주가 82.0%였고, 중간 도수 맥주가 12.0%, 낮은 도수가 6.0%였다

맥주 소비량(순 알코올 기준)

단위 : 천ℓ

구분 / 연도	낮은도수 (Low strength)	중간도수 (Mid strength)	일반도수 (Full strength)	총량
2008년	4,813	9,513	65,170	79,496
2009년	4,247	9,862	67,040	81,149
2010년	3,872	10,143	65,721	79,736
2011년	3,369	10,207	63,751	77,327
2012년	2,977	10,395	62,214	75,586
2013년	2,710	10,769	61,638	75,117

자료 : 호주 통계청

1인당 맥주 소비량으로 보았을 때는 2008년 이후 매년 감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08년 대비 2013년은 13.9%가 감소하였다. 도수별로 보게 된다면 낮은 도수는 무려 46.4%가 감소하였으며, 일반 도수는 13.8%가 감소하였다. 이에 반하여 중간도수는 3.6% 소폭 소비가 증가하였다.

호주의 맥주시장은 일본 기린(Kirin) 계열의 LION과 SABMiller 계열인 Foster's 가 양분하고 있다. Lion사의 주요제품으로는 XXXX, Tooheys 등이 있고, Foster's 사의 맥주 제품으로는 VB(Victoria Bitter), Carlton Draught 등이 있다. 시드니모닝 헤럴드에 따르면 2014년 6월 기준 병맥주 매출량 시장 점유율이 Lion은 47.5%, Foster's는 44.3%이다.

1인당 맥주소비량(순 알코올 기준)

단위 : ℓ

구분 / 연도	낮은도수 (Low strength)	중간도수 (Mid strength)	일반도수 (Full strength)	총량
2008년	0.28	0.56	3.85	4.69
2009년	0.24	0.57	3.87	4.68
2010년	0.22	0.57	3.72	4.51
2011년	0.19	0.57	3.55	4.31
2012년	0.16	0.57	3.41	4.14
2013년	0.15	0.58	3.32	4.04

자료 : 호주 통계청

○ 와인

2013년 호주 와인 소비량은 541,121천리터로 2012년에 비하면 0.5% 감소하였다. 레드와인과 기타 와인이 각각 2.4%, 2.0%를 증가하였지만, 화이트 와인은 3.1% 소비가 감소하였다. 화이트 와인이 감소한 것은 2001년 이후로 처음이다.

와인소비량

단위 : ℓ

구분 / 연도	화이트와인	레드와인	기타와인	총소비량
2008년	245,776	173,716	76,124	495,616
2009년	255,677	181,931	78,171	515,780
2010년	266,599	187,454	85,001	539,055
2011년	267,328	185,764	81,496	534,588
2012년	274,558	188,969	80,159	543,686
2013년	265,950	193,443	81,728	541,121

자료 : 호주 통계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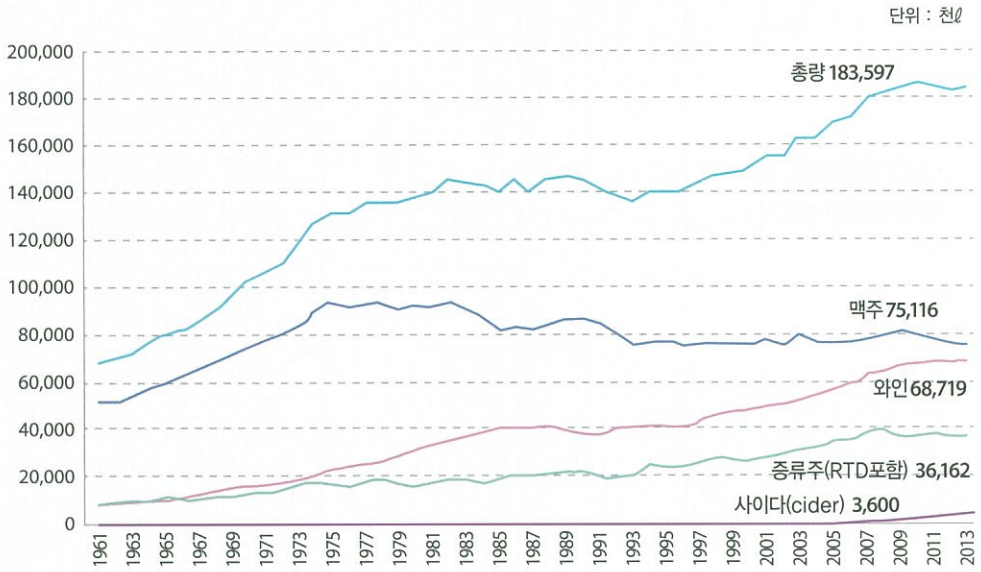
○ 한-호주 FTA가 한국 와인시장에 미치는 영향

2013년 12월 한 · 호주 FTA가 타결되고, 2014년 4월 8일 한 · 호주 FTA 공식 서명되면서 이제 비준절차만 남게 되었다. 예정대로 2014년 하반기에 한 · 호주 FTA가 비준되어 내년부터 한 · 호주 FTA가 발효되면 즉시 관세 15%가 철폐된다. 이에 호주산 와인은 저렴한 가격에 국내에 공급될 것으로 보인다. 호주 농무부에서는 「한국 · 중국 와인 시장에서의 수입 관세 철폐의 경제적 효과」라는 보고서(2012)에서 한국에서 호주와인에 대해 관세가 0이 되었을 경우에는 기존 수입량에 추가하여 최소 98,000리터에서 최대 160,000리터까지 더 수입이 될 것으로 예상하였다. 또한, 이를 금액으로 환산한다면 약 96만 호주 달러(한화 9억원 가량)가 더 수입되어 총액으로 보면 898만 호주 달러(한화 85억원 가량)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였다.

○ 호주 주류소비 장기 동향

호주의 음주 소비 동향을 50년 넘게 분석해보면, 주종별 음주량이 지속적으로 변화하였음을 알 수 있다.

1961년 이후 호주 주류 소비량 변화(순알코올 기준)



자료 : 호주 통계청

맥주의 경우에는 1963년 전체 소비량의 75%를 차지하였으나 2013년에는 41%로 떨어졌다. 같은 기간 와인의 경우는 12%에서 37%로 3배 이상 증가하였다. 증류주(RTD 포함)은 13%에서 20%를 증가하였다. 사과주(CIDER)의 경우에는 서서히 음주량이 증가하여 2013년 2%까지 되었다.

최근 14년간 호주 주종별 소비량 변화(순 알코올 기준)

단위 : 천ℓ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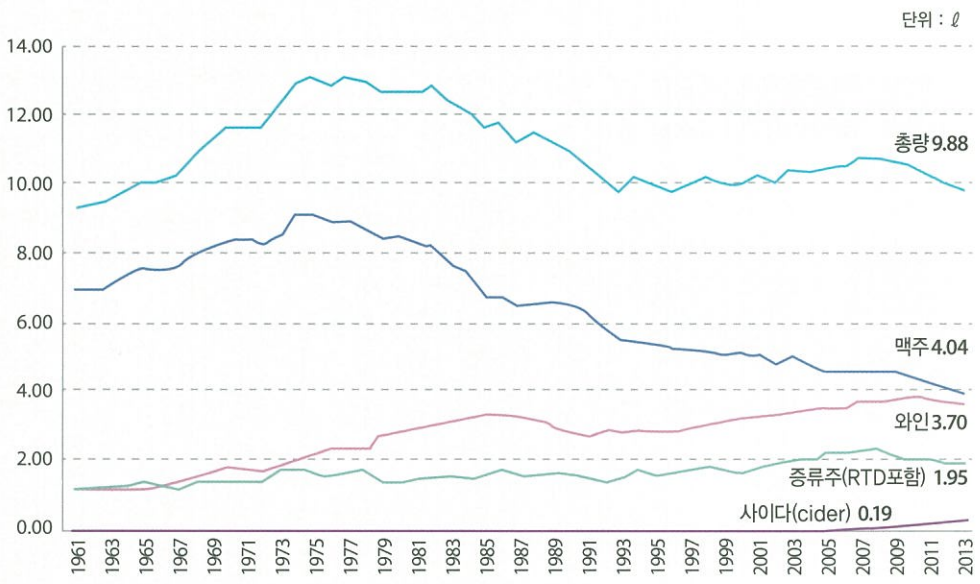
주종 / 연도	맥주	와인	증류주 (RTD포함)	사과주 (CIDER)	총합계
2000년	76,097	48,624	24,869	-	149,590
2001년	77,861	49,708	27,665	-	155,234
2002년	75,162	50,261	29,008	-	154,431
2003년	78,767	52,872	31,629	-	163,268
2004년	75,573	55,122	32,925	-	163,620
2005년	75,075	57,275	34,996	1,171	168,518
2006년	76,388	58,311	35,493	1,191	171,383
2007년	77,849	62,263	37,477	1,066	178,655
2008년	79,496	62,807	38,841	1,087	182,231
2009년	81,148	65,600	35,912	1,644	184,304
2010년	79,736	68,451	35,825	2,208	186,220
2011년	77,327	68,000	36,847	2,733	184,907
2012년	75,585	69,044	35,572	3,063	183,264
2013년	75,116	68,719	36,162	3,600	183,597

자료 : 호주 통계청

음주소비를 1인당 알코올 소비량으로 장기 50년 이상 분석해보면, 소비량의 변화가 눈에 띈다. 1960년대 초반부터 전반적인 주류 소비량은 증가하였으며, 1975년 13.1리터가 최고치를 기록했다. 그 이후 1982년 1인당 알코올 소비량 12.8리터를 보이며 유지하다가 그 이후 완만하게 소비량이 감소하여 1996년 9.8리터 불과하였다. 그 이후 2007, 2008년 1인당 알코올 소비량이 10.8리터를 기록하며 소폭 증가였으나,

2013년 다시 9.88리터를 기록하며 10리터 밑으로 떨어졌다. 2013년은 2012년에 비하면 전체 주류 소비량이 0.2% 증가하였는데 이는 이민자 등 인구 증가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1961년 이후 호주 1인당 주류 소비량 변화(순 알코올 기준)



자료 : 호주 통계청

○ 호주 주류 수출시 주의사항(자료: JETRO)

I. 수입허가

주류 수입업자가 호주 사업 번호(ABN)을 취득하여, 호주 세관에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s Integrated Cargo System(ICS)에 등록한다. 그 때, 수입업자의 각종 신분 증명(Evidence of Identity: EOI)을 제출한다.

농무부 (Department of Agriculture, Fisheries and Forestry: DAFF)에서는 수입 식품에 대해서 무작위로 검사를 하고, 수입 식품 규정(Imported Food Control Act1992, Food Standards Code)에

최근 14년간 호주 주종별 소비량 변화(1인당 순알코올 소비량 기준)

단위 : ℓ

주종 / 연도	맥주	와인	증류주 (RTD포함)	사과주 (CIDER)	총합계
2000년	5.08	3.25	1.66	-	9.99
2001년	5.13	3.27	1.82	-	10.22
2002년	4.87	3.26	1.88	-	10.01
2003년	5.04	3.38	2.02	-	10.44
2004년	4.77	3.48	2.08	-	10.32
2005년	4.67	3.56	2.18	0.07	10.49
2006년	4.68	3.57	2.18	0.07	10.50
2007년	4.69	3.75	2.26	0.06	10.76
2008년	4.69	3.71	2.29	0.06	10.75
2009년	4.68	3.78	2.07	0.09	10.63
2010년	4.51	3.87	2.03	0.12	10.53
2011년	4.31	3.79	2.05	0.15	1030
2012년	4.14	3.78	1.95	0.17	10.04
2013년	4.04	3.70	1.95-	0.19	9.88

자료 : 호주 통계청

근거하여 적법성 여부, 라벨의 적절성 등을 관리하고 있다 (Imported Food Inspection Scheme).

II. 호주내 판매시의 규제

1. 판매허가

알코올 음료의 판매에 관해서는 주마다 소비자 보호, 중량 · 용량, 건강의 관점에서 규제가 있다. 각 주(州)에 알코올 음료법(Liquor Act)에 의한 규제가 있어 판매형태로 판매면허가 필요하다. 판매면허에는 3종류가 있다.

- On premises license : 판매 장소에서 음주를 할 수 있다.(레스토랑, 공항, 기내, 극장 등)

- Packaged liquor license : 판매 장소에서 음주를 할 수 없다.(소매점 등)
- Limited liquor license :일시적으로 음주가 허가 된다.(리셉션, 이벤트 등)

주류의 신규판매면허나 영업시간이 지역사회에 악영향을 주지 않도록 면허 신청시 신청자는「지역사회에의 영향에 관한 문서(Community Impact Statement: CIS)」을 제출하고 지방 의회, 경찰, 지역사회와 협의하여 의견을 청취한다.

판매면허신청관청

- NSW주 : Office of Liquor, Gaming and Racing.
- VIC 주 : Victorian Commission for Gaming and Liquor Regulation.
- QLD주 : Office of Liquor and Gaming Regulation.

2. 라벨의 표시규제

라벨의 표시사항은 아래와 내용을 기재한다. 식품 기준 코드 (Food Standards Cord)의 1.2조 (Labeling and other Information Requirements) 및 2.7조 (Alcoholic Beverages)

-일반명칭 • 원료명 • 알코올도수(1.15%보다도 알코올 도수가 낮은 경우는「저알코올 음료(low alcohol beverage)」명시) • 표준잔(Standard Drink) • 소비기한(Best Before) • 용량 • 수입업자명 · 주소(또는 제조자명 · 주소) • 원산국 • 알레르기 경고표시 • 사용 · 보관방법 • 영양표시 • 브랜드명 (임의) 등

라벨 표시는 영어로 읽기 쉽고 명확한 문자로 표시해야 한다. 경고 표시에만 문자 사이즈의 규정이 있는데 3mm이상(작은 포장은 1.5mm이상)로 표시한다.

3. 용량 · 용기 규제

병이나 용기이나 특별한 기준은 없다. 호주에서 판매되는 와인들은 다양한 병이나 용기가 있다.

Ⅲ. 수출시 유의점

식품기준코드(Food Standards Code) 적합성을 농무부(DAFF) 및 각 주정부가 모니터하여, 호주의 식품 안전성 기준을 적용시키고 있다. 또한 HACCP(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도 준수하고 있다. 알코올의 판매나 소비에 대해서 제한을 하고 있는 주(州)도 있기 때문 주의가 필요하다.